제2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작품공모

도내 우수건축물 발굴 · 시상

경기도가 도내의 우수 건축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지역건축문화의 창달을 도모코자 제정한 「제2회 경기도 건축문화상」의 작품공모 요강이 발표되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가협회 경기지회가 공동주관하는 이 행사는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사용승인된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한 사용승인건축물부문과 건축전공 학생 및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보 대상의 계획작품부문 등 두 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사용승인건축물부문(주거 및 비주거작품)의 응모자는 작품설명서와 기본도면, 간이소개서 등이 첨부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작품은 작품설명서와 함께 패널 및 모형 각 1점씩을 제출하면 된다. 사용승인건축물의 부문별(주거부문 및 비주거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와 상금(설계자), 기념동판(건축주)이 주어지며 계획작품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이 수여된다.

발표된 응모요강의 주요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응모방법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1차접수 : 작품설명서와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에 대한 간이소개서가 첨부된 B4규격의 사진첩(8″×10″사진 10매 이내와 기본도면 수록) 2부 제출
- 2차접수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패널 제출

• 계획작품부문

- 패널(가로60㎝×세로90㎝) 1매 및 모형(가로100㎝×세로100㎝) 1점 제출
- 작품설명서 1부 첨부

2. 작품접수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1차 사진첩 접수 : '97. 9. 1 ~ 9. 6
- 1차 사진첩 심사후 2차심사대상에 선정된 작품에 한해 차후 별도 패널제출 통보
- 접수처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6-01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접수일 : '97. 10. 1 ~ 10. 2(09:00 ~ 18:00)
-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3-12 /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3. 발표 및 시상

- 수상작발표 및 시상 : '97. 10. 20
- 수상작전시회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등 5개지역 순회전시(예정)

4. 문의 : 경기도청 주택과 (0331-249-4920)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전화 0331-47-6129~31)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0331-32-363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개관

토지이용의 역사와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한눈에

토지 관련자료를 모아 한곳에 전시한 「토지박물관」이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공사 1층에 문을 열었다. 토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토지의 역사성을 일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관한 이 박물관은 '토지의 역사', '토지의 개발', '미래의 토지' 등 모두 3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특히 '토지의 역사' 와 관련해서는 토지이용의 역사와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유물과 패널, 디오라마, 모형, 영상 등을 시대별로 구성하였으며, '미래의 토지' 테마전시에서는 미래의 토지이용 모습을 자연친화적인 도시모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1월 ~2월까지는 오후 4시까지) 로 무료관람할 수 있다.

토지박물관

문의 : 한국토지공사 학예원실 (전화 0342-738-8995, 7770~4)

바우하우스 사진전

바우하우스 예술가 41인의 오리지널 사진작품 전시

주한 독일문화원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워커힐 미술관에서 「바우하우스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요제프 알버스, 라즐로 모홀리-나기 등 바우하우스의 예술가

41명의 오리지널 사진작품 124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의 개막행사는 8월 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 주한독일문화원 (전화 02-754-9831, 9833)

안토니 가우디 건축 · 디자인 특별展

가우디 건축작품 150여점 전시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 건축작품 특별전시회가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산상공회의소 2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스페인 정부와 주한 스페인대사관, 가우디 대학원의 협조를 받아 건축 및 조형예술 분야의 국민적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행사로 가우디의 설계도면과 모형, 구조물, 패널 등 총 150여점의 다양한 건축관련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전시기간중에는 비디오 상영과 특별강연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함께 펼쳐지는데 9월 20일에 있을 초청강연에는 가우디 대학원장이 '인간과 환경 그리고 건축'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안토니 가우디 특별전은 지금까지 전세계 20개국 92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돼 왔다.

안토니 가우디作 구엘공원의 벤치

「'97 건축가 미술전」 10월에 열려

현재 작품 접수중, 전시작품 판매 수익기금으로 「학생 작품전」 계획

건축가 미술 동우회(이하 '건미회' / 회장 한창진)가 여섯 번째 작품전을 갖는다. 오는 10월 10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서울 대치동 Plus갤러리에서 열리는 올해 전시회는 건미회 회원뿐만이 아닌 비회원 건축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건미회측은 금년부터 전시작품의 판매 수익금으로 「전국대학 건축과 학생 회화전(또는 드로잉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화를 비롯해 조각, 판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관련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출품희망자는 도록제작용 작품 슬라이드 사진 1매와 작가프로필 소개용 사진 및 약력 등을 오는 9월 10일까지 우선 제출해야 한다. 기타 주요 출품규정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전시작품 : 회화(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판화, 사진
- 작품매수 : 1인 3점이내 (규격은 자유)
- 자료제출(도록제작용) : 작품 슬라이드 1매, 작가의 약력 및 사진
- 자료제출시한 : '97. 9. 10
- 자료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7-38 (주)한라종합건축사무소 (전화 02-543-9708)
- 작품출품시한 : '97. 10. 10 정오
- 출품료 : 1인당 15만원
- 문의 : 건미회 회장 한창진 (한정건축 / 02-562-4414), 총무 강성익(한라종합건축 / 02-543-9708)

제5차 한옥특별강좌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와 해라시아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제5차 한옥특별강좌가 '한국의 궁실 건축' 이라는 주제로 충북 진천군 보탑사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신영훈 · 조정현 · 김대벽씨와 해라시아연구소 연구원인 김영일 · 황의수씨 등이 강사로 참가한다.
이 강좌는 선착순 6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학생 10만원, 일반 12만원이다.
(문의 : 02-736-3814)

서울건축학교 97년도 1학기 학사일정 발표

오는 9월 12일 개교

SA(서울건축학교)의 97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과 행사일정이 발표되었다.
7~8월중 신입생을 모집해 오는 9월 12일에 개교하는 서울건축학교의 1학기 과정은 9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짜여져 있다.
서울건축학교는 또한 1학기과정동안 금요정기강좌를 비롯해 건축기행과 SA전시회 등 다양한 건축관련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된 주요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문의 : 02-529-3044)

■ 주요 학사일정

- 7월 7일~8월 30일
  : 원서교부/교부장소 - 원서동 공간사
- 8월 28일(목)~30(토) : 원서접수
- 9월 2일(화) : 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개별통지

• 9월 3일(수)~5일(금) : 면접
• 9월 8일(월) : 최종 합격자 발표/서울 건축학교에 게시
• 9월 9일(화)~10(수) : 등록
• 9월 11일(목)~12(금)
: 입학 오리엔테이션, 설계스튜디오 설명회
• 9월 12일(금) : 개교 행사
• 9월 18일(목)~11월 22일(토)
: 1학기 과정
• 11월 17일(월)~11월 22일(토)
: 학기말 전시회

■ 설계스튜디오별 주제

• 스튜디오 1 - Writing in Architecture/Architecture in Writing
• 스튜디오 2 - Numathics in Single-Surface
• 스튜디오 3 - 동궐과 Villa Hadrianus

건축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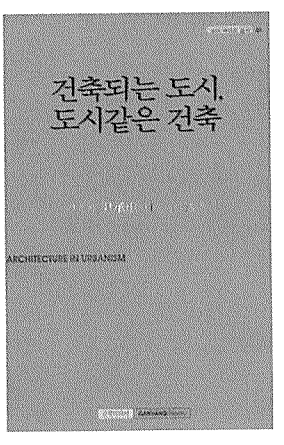
**건축가 원대연의 여행 넘어서기/
건축되는 도시, 도시같은 건축/
더글라스 전나무 자료집**

◇ 찾아보며 생각하며 「건축가 원대연의 여행 넘어서기」시리즈

건축가로 또 〈월간 플러스〉의 발행인으로 활동해온 원대연씨가 그동안 플러스誌를 통해 발표해온 자신의 글과 사진들을 새롭게 구성해 책으로 발간했다. 여행서 형식으로 발간된 이 책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여행서들이 글에만 치중해 시각적인 정보가 미흡했던데 비해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내용의 사진들을 담고있던 독자로 하여금 현실감을 더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특히 1권에 소개된 강원도 현리 소나무에 대한 염려나, 2권에서의 이탈리아 남부 산동네에서 엿보이는 삶의 지혜, 그리고 3권에서 삶과 죽음을 건축물로 실현시킨 화장터에 대한 감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밖에도 삶의 연륜과 주변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는 다가설 수 없는, 여행을 넘어선 기록들이 책장마다 스며있다. 또한 제목이 말하고 있듯,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찾아나선 삶의 이야기와 이러한 국내외의 명소에서 우리 것, 내 것 만들기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저자의 정서가 전편에 담겨있다.
원대연著 / 플러스문화사(02-563-4322) 펴냄 / 전면 올컬러 반양장판/ 1,2권-1만 8천원, 3권-2만4천원

◇ 건축되는 도시, 도시같은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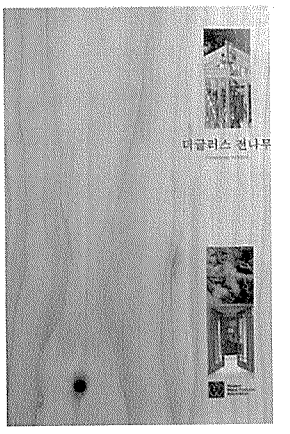
이 책은 과거 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한국현대건축의 중심부에서 한평생 건축가의 길을 걸어온 윤승중(원도시건축 대표)씨가 '건축인생 불혹의 때'에 정리하는 건축산문집이다.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법원청사, 한일은행 본점, 조선일보 평촌사옥 등의 작품으로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해 온 저자는 이책에서 건축가로서의 건축 혜안과 통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깊은 사색의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책의 한 절 한 절마다에는 우리 현대건축의 단면을 리뷰하는 시대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이 한 권의 에세이집으로 이 땅의 현대건축사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해 주고 있다.



윤승중著 / 간향미디어 펴냄(02-637-3890) / 신국판 / 365쪽 / 9천원

◇ 더글라스 전나무 자료집(Douglas-Fir Species Book)

미국 서부지역 목재협회(Western Wood Products Association)가 발간한 이 자료집은 수종에 따른 목재의 독특한 특성 이해와 이에따른 적절한 목재의 선택 및 폭넓은 이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외양상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도와 치수상의 안전 및 정확성,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더글라스 전나무는 미국 서부지역 침엽수 중 최대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다. 이 자료집은 서부산 목재 생산지의 풍토적 특색, 수종 그룹에 대한 상세한 설명, 더글러스 전나무의 분포지역, 성장 특성 및 생산현황, 특성 및 적합한 용도, 등급결정과 용도별 다양한 응용 가능성 및 그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더글라스 전나무 수종으로 만들어진 최신 미국 목조주택의 사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목구조 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책은 한국내 WWPA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02-722-3685)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설계 · 시공분야의 세계적 소프트웨어展 - A/E/C System '97 성료

건축자재 및 A/E/C 분야 각종 소프트웨어 전시 · 시연

지난 6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는 CAD/CAM/CAE분야의 세계적인 전시행사인 A/E/C System '97이 개최되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펜실베니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세계각국의 CAD관련업체가 참가, 건축자재를 비롯해 A/E/C(Architecture/Engineering/Construction)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와 신기술들을 선보여 전시장을 찾은 각국의 건축 · 건설관계자와 일반참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인터넷 Web과 연계해 각종 설계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한 여러 CAD제품군들이 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들 CAD제품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도면을 그리던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는 관련분야인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시설물관리(FM), 기술관련문서관리(TDM)기능 등을 종합한 통합문서관리시스템화 단계에까지 이르러 세계각국의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들은 앞다투어 세계 공통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번 전시회를 참관하고 돌아온 서울대 건축공학과 고일두 교수가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이번 행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EC Systems '97의 주요 내용〉

● **Web을 중심으로 한 설계정보 교환**

— Internet을 통하여 설계 · 시공 과정의 정보를 교환한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현장에서 웹을 통해 본사의 홈페이지에 연결한 후 본사 서버상의 도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설계도면을 찾고 그 설계도면에 수정할 사항을 표시하면 그 정보가 본사의 설계담당자에게 전달되고 담당자는 즉시 그 정보를 메일형태로 전달받게 된다. 담당자가 설계내용을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 또한 현장의 관련자에게 즉시 전달된다.(제품 예 : Bentley사의 Model Sever Pub-lisher)

-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관련 정보를 Web상의 정보에 연계시킨다. 예를 들면 설계도면 속의 외벽마감재를 표시할 때 설계자가 알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요소만을 문자형태로 기입하던 방법을 바꾸어서, 마감재의 그래픽 요소에 그 마감재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Web Site(예 : 제조자나 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 연결해 두면, 설계도면을 읽는 사람이 그 자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그 자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그 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Web Site에 연결되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은 이전에는 관련 정보를 문자로만 기입해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부정확해지고 기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Web과 연계된 자료 표시방법은 가격과 같이 항상 변하는 자료를 가장 최신의 것으로 제공해 주며,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의 자세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제품 예 : Autodesk사의 AutoCAD R14)

- 웹을 통한 정보 서비스

1. Master Systems : Master Format에 의한 자재 분류 자료 서비스
2. AIA Onlin : AIA member에 대한 정보 서비스
3. PMI 회원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정보 서비스

● **선택 폭이 넓어진 CAD 엔진**

국내의 경우 AutoCAD를 중심으로 AEC 분야 CAD제품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예:Intergraph제품군, Microstation, ArchiCAD) 것부터 최근에 개발 공급되기 시작한(예:FelixCAD, ALLPLAN-FT, Corel-CAD, MicroGDS, 등) 다양한 CAD가 공급되고 있다.

- FelixCAD는 AutoCAD와 가장 닮은 CAD 엔진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보급 확대가 예상됨.

- CorelCAD는 기능이 기존 제품의 80~90%에 달하면서도 가격이 300$ 이내인 저가의 보급형 CAD이다. 벌써 AEC 분야의 3rd Party 응용이 나와 있다. 뛰어난 가격대 성능비로 앞으로 국내에 보급확대가 예상된다.

- MicroGDS는 영국에서 개발된 건축 분야의 오래된 응용으로 최근 개발권이 일본(NextWave Technol-ogies)으로 넘어 갔으나 WinNT판으로 계속 개발할 예정이다.

- Reflex는 이전의 Sonata를 최근 발전시킨 것으로 진취적인 개발 방향을 갖고 있으나 고급의 Platform을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다.

- ALLPLAN은 독일 Nemet-scheck사의 제품으로 Unix에서 사용하던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는 건축전용 제품이다. 최근에 WinNT/95판 ALLPLAN-FT로 영어권에 진출했다. 이것은 Object개념을 도입한 건축분야의 첨단 제품이다.

- ARCH14는 ALLPLAN의 기능을 AutoCAD R14에 탑재한 것으로 ALLPLAN의 고급 기능과 AutoCAD의 범용성이 결합된 제품이다.

- ArcCAD/ARCINFO는 ESRI사 제품으로 GIS/FM 분야의 뛰어난 제품이다.

- ARCHIBUS/FM도 FM분야의 뛰어난 성능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 **IFC(Industry Foundation Class)**

- AEC분야의 새로운 응용을 위한 Object Class로서 각 프로세스간(예 : 설계/시공/관리)이나 동일 시점에 동시 작업 중인 협업 분야 간의 정보교환을 그래픽 자료 뿐만 아니라 속성등 관련자료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모순이 없도록 유지/교환하기 위한 기술이다.

- IAI(Industry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단체에서 최근에 IFC 관련 기술을 실용단계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시제품을 내어 회원사에 보급 중이다.

- AutoDESK, Bently, Nemet-schek사는 각자의 제품인 AutoCAD, Microstation, ALLPLAN에 IFC시제품을 실에서 제품간의 자료 교환을 시범해 보였다.

- AEC 전시회에서 방문한 주요 CAD사와의 IFC에 관한 대화에서도 다음 2가지 경우의 답이 있다.

1. 지금 IAI에 적극 참여 중이며 곧 제품이 나온다.
2. 만들어진 IFC 표준이 발표되는 대로 수용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

- 최근 한국에서도 IAI Korean Chaper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